

안녕하십니까?

평소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우리부로 이첩된 마사회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마사회가 청소년 출입금지장소인 장외발매소에서 팬미팅 행사 및 교회를 유치, 청소년 출입을 방조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팬미팅 행사에 출입한 청소년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척교회의 예배공간 제공 요청에 대해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생 차원에서 5월 초부터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장외발매소 운영 공간(13~17층)과 분리된 18층을 예배 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문제제기(6.8일) 이후 장소 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향후 청소년 출입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높은 입장료와 전면 지정좌석제 도입 약속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지정좌석제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상의 입장료 2천원 외에 좌석제공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마사회에서 시행규칙상 명기된 입장료 2천원을 지불하고 입장하고자 하는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좌석제를 시행하는 타 장외발매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26(금)~6.28(일)까지 용산장외발매소 좌석(574석)중 8%에 해당하는 46석을 2천원으로 입장 가능한 좌석으로 전환·운영하였으나, 마사회에서 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전면개장이 아닌 관계로 2천원권 입장제 시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는 당초와 같이 프리미엄 좌석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사회가 발간하는 홍보자료, 언론광고 등에 마권구매 관련 경고문구 표시의무를 불이행했으며,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마사회는 모든 광고의 집행 시 지나친 마권 구매의 폐해에 대해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기관인 사감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광고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네번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품행사 등을 시행한 한국마사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용산 장외발매소는 6월 마지막주 경마일(6.26~28)에 이용고객 감사이벤트의 일환으로 경품이벤트를 시행하였으나, 경품지급 내역이 가정용품(믹서기)이었으며 입장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객 감사차원에서 경마고객 및 경마공원 이용객에 대한 사은 행사는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섯 번째, 용산 장외발매소 내 주류반입 및 만취자를 입장시킨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마사회는 사업장 내 만취자 입장 및 주류 반입은 현재 캠페인을 통해 입장제한 및 퇴장됨을 공지하고 있고, 사업장 입구 및 충마다 음주측정기를 활용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질서유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입장관리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산 장외발매소 인근 불법사채업자와 관련 광고가 등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마사회에서 환경지킴이, 안전지킴이, 실버PA 등을 인근 지역에 배치하고 주기적 순찰을 통해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대부광고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이용고객 및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각종 생활환경 악화사례로부터 이용객과 지역주민을 보호하고자 질서계도, 주차질서유지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와의 이격거리, 고소고발 취하, 반대하는 주민 소수에

불과 등의 거짓에 대해 확인한 바, 마사회에서 향후 장외발매소 혁신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마사회 또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마사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사회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어 기사 내용을 기획하여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주민들 경조사까지 악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마사회는 용산지역 3개 신문사에 문화센터 운영안내 광고를 시행하였고 마사회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으나, 광고시행을 대가로 우호기사를 청탁한 바 없으며, 용산구 관계자의 경조사에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관례에 따라 2회 참석한 사실은 있으며, 아울러 문화센터를 이용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우호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병운 (044-201-2325, sola200w@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